

초등학생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다층생존분석 연구†

김성훈*

<국문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중단적인 비행변화와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경기교육중단연구(Gyeonggi Education Panel Study, 이하 GEPS)의 1-3차년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컨닝은 초등학생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비행유형이다. 시험스트레스 완화가 초등학생의 컨닝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우울, 불안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모든 비행에 영향을 주었다. 학생 심리상태의 안정적 지원과 가정의 관심과 지도가 청소년 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건전한 시민의식 교육이 초등학생비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위한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인권이 긍정적으로 조성되면 비행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드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와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초등학생 비행, 다층생존분석, GEPS

*김성훈(auctor21@krivet.re.kr)
학위취득 대학: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현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 이 논문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제2회 경기교육중단연구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 편집한 것입니다.

논문접수일: 2018년 10월 2일, 논문수정일: 2018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2018년 10월 23일

A Multilevel Survival Analysis for Factors Affecting Elementary School Delinquency

Kim Seong-hun

<Abstract>

This research utilizes the data provided by the Gyeonggi Education Panel Study (GEPS) collected over a course of three years in order to analyze the longitudinal shift of acts of delinquency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ost frequently occurring delinquency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is cheating during exams. In order to discourage this activity, a method to reduce examination stress needs to be developed. Second, in all of the noted delinquent acts, depression, insecurity, and the parental situation had a major influenc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student's psychological state and the family relationship vis-a-vis the child play major roles in delinquent acts. Third, civil education provided at school level had an influence in discouraging delinquent acts. Fourth, a positive direction for human rights results in a school with a lower number of delinquent acts. Therefore, building a school where the rights of the students are protected is a major necessity in which educational organizations need to invest. Based on these results, practical strategies are proposed and a few limitations in realistically carrying out the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s] *elementary delinquency, multilevel survival analysis, GEPS*

I. 서론

청소년 비행은 흡연, 음주, 거짓말, 무단결석, 가출과 같이 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일탈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지위비행(노성호 2006)과 살인, 강도 등과 같은 강력범죄, 그리고 재산범죄, 경범죄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심미영·정규석 2007). 하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의 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부적절한 행동, 도덕이나 관습에 어긋나는 행동, 음주, 흡연, 무단결석 등 형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부모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을 청소년 비행으로 정의한다(황성현·이강훈 2013).

이러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보고(임희진 2014)에 따르면 음주는 2009년 56.1%, 2010년 54.8%, 2011년 51%, 2012년 47%, 2013년 43.5%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으며 흡연 역시 2009년 27.4%, 2010년 26%, 2011년 26.3%, 2012년 24.6%, 2013년 21.4%로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처음으로 음주를 경험하는 시기는 12.9세이고 흡연은 12.6세이며 최초 가출 시기는 중고등학교 시기보다 초등학교 시기가 가장 많은 31.6%를 차지하였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은 양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비행 발생 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저연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임희진 2014).

비행 발생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청소년 비행에 대한 연구는 초등학생에 맞는 비행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에서 청소년 비행의 주된 내용으로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따돌림, 커닝과 같은 지위비행이 조사되었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흡연과 음주에 비하여 커닝, 따돌림, 결석, 가출과 같이 초등학생 시절부터 경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비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행에 대한 연구를 통해 초기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 정책적 관심이 되기 때문이다(황성현 2012).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개인의 내적 요인 뿐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의 집단 요인과의 상호 영향을 받음으로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에 대해 다층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기광도 2012; 노성호 2005; 박혜숙·김양곤 2014).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청소년 문제들과 관련하여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왔고, 청소년 문제 발생연령의 하향화 경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으나(김영한·조아미·이승하 2013), 분석방법에서는 비행의 여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횡단연구 회귀분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생존분석은 이러한 시간 흐름에 따라 변하는 특성을 반영하는 모형으로 학생들의 비행에 대한 영향 요인을 시간적 특성에 따라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일탈에 대한 초기의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며 시간의 특성을 반영한 생존분석방법을 적용하며 이와 동시에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는 다층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비행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청소년 비행의 원인은 개인의 내적 특성과 개인이 속한 상황인 사회문화적 환경(가정, 환경, 친구관계 등)으로 구분하여 기존의 연구들에서 다각도로 살펴왔다. 이를 학생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범주화하면 개인 내적 요인, 사회성 요인, 가정요인, 학업관련 요인과 학교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성훈 2015a).

개인 내적 요인은 우울증(고은희·김은정 2015), 공격성, 자기통제력(현문정·한영선 2015), 자아존중감(남미경·이경남 2009) 등과 같이 신체적 특성, 유전적 특성, 성격 특성 등 개인차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김경식 1997).

사회성 요인은 친구와 교사의 관계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친구와의 관계로 심리적 안정감을 얻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면에서 청소년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지만 이에 반해 친구의 영향으로 비행을 시작하기도 한다(노성호 2005; 김지경·김근희 2013; 김영순·김혜원 2007; 박소연·이홍직 2013). 친구와의 여가시간(허준·이윤호 2012), 이성에 따른 영향(강상진·전민정·장지형 2005) 등이 친구관계에서 비롯된 비행요인이 되기도 한다. 교사와의 애착은 중단적으로 청소년 비행을 감소시키며(이재경 2012)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청소년들의 사이버비행을 막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은희·김은정 2015).

가정요인은 가장 기초적인 청소년의 비행 영향요인으로 인식된다. 부모의 학력, 경제력에 따른 자녀의 통제가 비행에 영향을 주며(임지영 2011)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 부부간의 만족도, 훈육의 유형인 가정의 질적 측면도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준다(노성호 2005). 이와 함께 부모의 부정적 또는 부적절한 양육태도, 부모의 적대, 무관심, 방임(전유리·김윤지·송하나 2013)도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다.

학교요인은 교육정책과 학교별 목표설정을 통해 구체화 될 수 있으므로 비행예방을 위해 중요한 방안이 된다.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만족도는 문제행동을 경감하는 결과를 보여주며(강상진 외 2005) 학교생활에의 낮은 성취도, 낮은 학교애착, 학습무기력, 학교에서의 안 좋은 경험등은 청소년 비행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남재봉 2011).

2. 비행의 유형 및 영향요인

비행의 유형 중 시험부정행위(커닝), 따돌림, 무단결석, 가출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험부정행위는 학업부정행위의 하나로 학업활동을 하는 중에 부당한 도움을 주거나 받는 것이다(심우엽 2000). 시험부정행위는 긴장이나 불안이 높고 반사회성이 높을수록(송현저 1994) 부정행위를 한다. 또한 도덕성 측면에서는 윤리의식이 낮고 자제력이 약하며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가 강할수록 부정행위를 많이 한다(Anderman 1998).

따돌림은 현재의 부정적 영향보다도 장기적으로 심리적인 발달과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Asher 1990). 청소년기에 겪었던 집단따돌림의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 대인관계 불안이나 공포를 조성하며, 대인관계를 회피하거나 억압하게 된다(박경숙·손희권·손혜정 1998). 이러한 따돌림에 대한 영향요인으로는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이 영향을 주며(Olweus 1993) 부모의 과잉보호와 과잉결속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owers·Smidth, & Binney 1994). 부정적인 부모상, 자아개념 변수가 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정호 2005).

무단결석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는 것으로 결석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조미경·김희영 2013). 무단결석은 따돌림과 같이 현재의 의미보다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교육실패와 학교중도탈락, 비행활동과 성인기의 범죄와 같은 부정적 결과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Garry 1996). 이러한 무단결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학년이 올라가며 학업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만족도가 낮을수록 무단결석이 높아진다(조미경·김희영 2013).

가출은 그 결과로 건강악화, 폭력, 범죄, 약물 등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백혜정·방은령 2009). 가출에 대한 영향요인은 자존감, 부모의 방임과 학대(홍세희·김동기 2007), 학업성취도, 불안과 우울(오승환 2010), 친구의 지지와 동조(전신형·김원경·황성현 2010)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비행에 비하여 가출은 가정 관련 요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가정불화나 가족관계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가출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된다(박영호·김태익 2002).

3. 비행연구에 대한 방법론 논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양적 연구는 종단과 횡단에서 여러 연구가 이뤄졌다. 최근에 다양한 종속변수의 유형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상무, 남성희(2012)는 가출빈도라는 종속변수의 특성을 고려한 영과잉 포아송 회귀(Zero-Inflated Poisson regression)를 실시하였다. 영과잉 포아송 회귀는 종속변수가 계수변수(count variable)이면서 동시에 '0'이 과다하게 분포한 경우 적절한 분석 방법이다. 김지경, 김균희(2013)은 청소년의 음주여부라는 종속변수의 특성에 따라 이항 로짓 모델과 순서형 로짓 모델을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김성은, 박산하와 김진석(2014)은 개인이 학교에 내포되어 있는 위계적 자료구조를 반영하여 다층분석모형을 활용하면서 개인정보 도용 등과 같은 특정 사건의 발생횟수라는 이산변수의 모형 추정을 위해 다층 포아송 회귀분석(multilevel Poisson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이 분석방법은 다층구조를 반영하여 관측의 비독립성을 분석모형에 고려함으로써 표준오차의 과소추정에 따른 1종 오류의 증대를 예방하는 다층모형과 연속형 종속변수를 분석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다. 서봉언, 김경식과 최성보(2015)는 사이버 욕설 한 적이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인 사이버 욕설 경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 로지스틱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처럼 연구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다양한 변수특성에 따라 분석 방법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종속 변수로 하는 연구인 생존분석은 아직은 많은 연구에서 수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 몇몇 사회과학 연구(허균, 2014; 홍세희, 노언경, 2010)에서 생존분석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위 연구들의 공통점은 사회과학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단층구조에서의 생존분석이라는 점이다. 이에 김성훈(2015b)은 개인이 가정에 속해 있는 구조를 반영하여 추정의 오류를 최소화한 다층생존분석으로의 확장 연구를 통해 청소년 비행에서 가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학생들의 현장인 학교에 의한 다층구조로의 확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 연구는 학교구조를 반영한 다층생존분석을 초등학교에 적용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비행 변화를 살펴보고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경기교육중단연구(GEPS)의 1-3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GEPS는 경기도 학생들의 인지·정·신체 특성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학부모 특성과 경기도의 교육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층화군집표집방법을 통하여 2012년에 총 11,834명(초등학교 4학년 3,541명, 중학교 1학년 4,051명, 고등학교 1학년 4,242명)을 대상으로 하여 추적 조사하고 있다(김성훈, 2015a). 이 연구는 1-3차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며 교사, 학교장 자료도 함께 분석하였다.

2. 분석변수

가. 종속변수

이 연구의 활용 비행변수는 커닝, 따돌림, 결석, 가출 네 가지이다. 이러한 네 유형의 청소년 비행 확인을 위해 경기교육중단연구(GEPS) 학생질문지에서 1차년도는 “학생은 다음의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1) 시험시간에 부정행위를 한다. 2) 친구를 집단 따돌림 시키다. 3) 무단으로 결석한다. 4) 가출 경험이 있다”에 있다와 없다로 대답하였다. 2,3차년도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1) 시험시간에 부정행위를 한다. 2) 친구를 집단 따돌림 시키다. 3) 무단으로 결석한다. 4) 가출 경험이 있다”에 있다와 없다로 대답하였다. 1~3차 각각의 응답에 대하여 코딩값은 1-있다. 0-없다로 활용하였다.

<표 1> 주요 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개인 수준 설명 변수	성별(남학생)	3541	.51	.500	남:1, 여:0	
	정신건강 (우울·불안)	초4	3482	1.691	.719	.825
		초5	3261	1.864	.804	(6문항)
		초6	3120	1.919	.856	
	자아존중감	초4	3486	3.377	.543	.551
		초5	3236	3.972	.703	(7문항)
		초6	3100	3.988	.732	
	시험스트레스	초4	3477	3.095	.980	.856
		초5	3225	3.249	.957	(7문항)
		초6	3092	3.112	1.030	
	교육포부	초4	3516	3.256	1.452	
		초5	3274	3.946	1.599	
		초6	3097	3.851	1.542	
	시민의식	초4	3419	3.432	.558	.723
		초5	3227	4.032	.582	(10문항)
		초6	3016	3.946	.466	
	학교적응 (친구)	초4	3506	4.037	.762	.878
		초5	3264	4.099	.703	(6문항)
		초6	3090	4.106	.699	
	학교적응 (교사)	초4	3477	3.635	.917	.893
초5		3253	3.627	.883	(6문항)	
초6		3086	3.664	.893		
양육태도 (감독)	초4	3517	4.260	.876	.838	
	초5	3275	4.312	.764	(3문항)	
	초6	3107	4.273	.788		
학교만족도	초4	3526	4.236	.872		
	초5	3243	4.050	.886		
	초6	3087	3.944	.915		
학교인권상황	초4	3492	1.389	.666	.691	
	초5	3265	1.284	.554	(5문항)	
	초6	3106	5.892	2.163		
학교 수준 설명 변수	지역규모(도시:1, 읍면:0)	85	.69	.464		
	혁신학교(혁신:1, 일반:0)	85	.32	.468		
	생활지도사업(실시:1,미실시:0)	76	.38	.489		
	학생상담사업(실시:1,미실시:0)	74	.31	.466		
	교사의 사기열의	85	4.197	.470	.761(3문항)	
	교사의 교직만족도	85	3.931	.549	.855(6문항)	
	학교장 변혁적리더십	85	4.743	.272	.830(12문항)	
	학교장 인성교육목표설정	85	.40	.493		

나. 설명변수

초등학생의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일반 학생특성, 심리, 학업, 사회성, 가정, 학교요인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학생 특성 변인으로는 학생 성별을 더미변수로 남자는 1, 여자는 0이 부여되었다.

심리요인은 (1) 정신건강(우울, 불안), (2) 자아존중감 변수를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신건강은 학생질문지의 학생의 정신 건강에 대한 질문으로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모든 일에 걱정이 많은 편이다”,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로울 때가 있다” 등의 총 6문항에 대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답한 내용을 평균으로 하여 활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학생질문지의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질문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일을 잘 할 수 있다” 등의 총 7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답한 평균을 활용하였다.

학업관련 요인은 (1)시험스트레스, (2)교육포부를 포함하였다. 시험스트레스는 학생의 시험 스트레스에 대한 질문으로 “시험을 앞에 두면 긴장된다”, “시험 직전에 더 떨린다”, “시험 때면 아는 것도 잊어버린다” 등의 총 7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답한 평균을 활용하였다. 교육포부는 “학생은 조건이 허락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교육받기를 바랍니다?”라는 질문에 1=고등학교 졸업, 2=2~3년제 대학, 3=4년제 대학, 4=대학원 석사 졸업, 5=대학원 박사 졸업, 6=기타로 대답하였으며 기타를 제외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포부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여 활용하였다.

사회성요인은 (1) 시민의식, (2) 학교적응(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로 구성되었다. 1,2차년도는 학생질문지의 학생의 시민의식에 대한 질문으로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어려운 친구나 이웃을 도와준 적이 있다”, “주변에 어려운 친구나 이웃을 보면 도와주고 싶다” 등의 총 10문항에 대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답한 내용을 평균으로 하여 활용하였다. 3차년도는 학생질문지의 학생의 시민의식에 대한 질문에 “내 일이 아니면 대충한다”, “함께 협력해서 일해야 하는 경우에 슬쩍 빠져나온 적이 있다” 등의 문항이 추가되어 총 17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답한 평균을 활용하였다. 학교적응은 친구와 교사와의 관계성에 대한 문항이다. 학교의 친구에 대한 질문으로 “학교친구들과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나와 함께 놀아줄 학교친구가 있다” 등의 6문항에 대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답한 내용을 평균으로 하여 활용하였다. 학교의 친구에 대한 질문으로 “선생님들은 대체로 나에게 잘해주시려고 노력한다”, “선생님들은 나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등의 6문항에 대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답한 내용을 평균으로 하여 활용하였다.

가정요인은 양육태도(감독)이다. 감독은 부모님이 학생에게 하는 행동에 대한 질문으로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집에 돌아올지 알고 계신다”의 3문항에 대하여 5점척도의 평균을 활용하였다.

학교요인은 1수준학교요인과 2수준학교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1수준 학교요인은 (1) 학생 개인의 학교만족도, (2) 학생 개인이 생각하는 학교의 인권상황이다. 학교만족도는 “현재 다니는 학교에 대해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전혀 만족하지 않음, 2=만족하지 않음, 3=보통임, 4=만족함, 5=매우 만족함의 값을 활용하였다. 학생이 생각하는 학교의 인권상황은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직접 당하거나 다른 학생이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1)직접적인 차별, 2)간접적인 차별, 3)복장이나 두발 규제, 4)학교에 가져와서는 안 되는 개인 물건

압수, 5)선생님들의 언어폭력의 각 사항에 대하여 1=전혀없다, 2=1년에 1~2번, 3=한 학기 1~2번, 4=한 달1~2번, 5=한 주1~2번, 6=거의 매일의 값을 평균값으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2수준 학교요인은 (1) 설립유형, (2) 지역규모, (3) 남녀공학, (4) 혁신학교, (5) 생활지도사업, (6)학생상담사업, (7) 교사의 사기와 열의, (8) 교사의 교직만족도, (9)학교장의 변혁적리더십, (10)학교장의 인성교육목표설정이 포함되었다.

학교 설립 유형은 국·공립일 경우 1, 사립일 경우 0 값을 부여하여 더미변수로 활용하였다. 초등학교는 설립유형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 학교가 속한 지역규모는 도시는 1로하고 읍면은 0을 부여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남녀공학여부는 남녀공학을 1로하고 별학을 0의 값을 부여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혁신학교는 혁신학교일 경우에 1, 일반학교는 0으로 투입하였다. 생활지도사업과 학생상담사업은 학교에서 위 사업을 실시하면 1, 실시하지 않으면 0으로 하였다. 교사의 사기와 열의는 교사설문지에서 “나는 사기(의욕)이 높다”, “나는 열의를 갖고 근무한다”, “나는 우리 학교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의 3문항에 대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답한 내용을 평균으로 하여 활용하였다. 교사의 교직만족도는 “나는 교사라는 직업에 만족한다”, “나는 교사로서 하는 업무에 만족한다”등의 6문항에 대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답한 내용을 평균으로 하여 활용하였다. 그리고 해당학교 교사들의 평균점수를 학교수준인 2수준에 반영하였다. 학교장의 변혁적리더십은 교장선생님의 학교 경영과 관련된 질문으로 “학교발전에 대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교사 및 학부모와 학교 교육목표를 공유한다”, “교육의 목표 설정과 평가 과정에 교사를 참여시킨다”, “학교개혁과 발전에 대해서 교사와 학부모에게 조언을 구한다”, “교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에 대해 교사들과 상의한다”등의 12문항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답한 내용을 평균으로 하여 활용하였다. 학교장의 인성교육목표설정은 “학교를 운영하실 때 학생의 교육 성과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목표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인성교육은 1로 하고 다른 목표들(학력증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개발, 특기적성교육강화 등)은 0으로 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김성훈, 2015a).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층생존분석(Multilevel survival analysis)을 적용하여 초등학생들의 최초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의학에서 주로 사용되던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이 최근 교육학과 사회학등에서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으로도 불리며 활용되고 있다. 생존분석은 연구자가 관심이 있는 사건에 대한 발생 여부와 발생 시점을 예측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는 통계적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초4를 시작으로 해서 초6을 종료시점으로 하여 비행 참여 여부의 정보를 확인하게 된다. 비행 참여한 것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며 조사 시점까지 총 3번의 시점에서 시행된 최초 참여시점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생존분석은 모든 개인이 독립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다단계 군집 표집을 하는 교육학 분야에서는 추정에 있어 제 1종 오류의 증가와 표준편차의 과소추정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다층생존분석을 통해 개인 및 집단 수준에서의 분석이 가능함으로 각 개체들이 독립성 가정이 지켜지지 않는 다층자료에서 데이터의 층위를 반영하여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집단 효과를 집단 수준의 변수와 함께 추정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다층생존분석(Multilevel survival analysis)을 적용한 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며 프로그램은 HLM7으로 분석한다(김성훈, 2015a).

4. 결측치의 처리

연구모형들에 투입된 변수들의 결측치를 처리하기 위해 다중대체법(multiple imputation)을 사용하였다. 분석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에 포함된 결측을 제거한 뒤 분석을 하는 경우 분석 사례 수가 감소하게 되어 통계적 검증력이 약화되고 모수 추정에 편의를 발생시킬 수 있다(Little and Rubin,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 방생이 임의적(MAR: Missing at Random)이며 이러한 결측 양상을 다른 변수들로부터 예측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다중대체법(multiple imputation)을 사용하였으며 5회의 반복을 통해 결측치 대체를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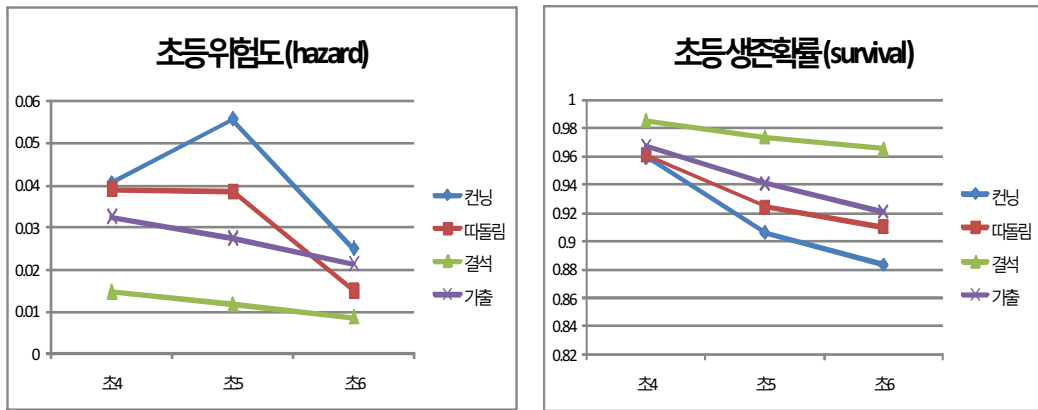
1. 위험도와 생존확률

<표2>에 있는 최초 비행시점을 살펴보면, 학년이 오를수록 초기 비행 발생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1]로 비행유형별로 비교시 커닝이 가장 낮은 생존확률이며 가장 많은 비율로 커닝을 한다. 따돌림은 두 번째의 낮은 생존확률이며 결석은 생존확률이 가장 높았다. 가출은 두 번째로 높은 생존확률 비행이다.

가장 높은 비행 유형은 커닝이고 가장 낮은 비행 수준을 보이는 것은 결석이다.

<표 2> 첫 비행 시점

	커닝 빈도(%)	따돌림 빈도(%)	결석 빈도(%)	가출 빈도(%)
초4	143 (34.7%)	138 (43.4%)	52 (42.3%)	115 (41.1%)
초5	189 (45.8%)	131 (41.2%)	41 (33.3%)	94 (33.6%)
초6	80 (19.5%)	49 (15.4%)	30 (24.4%)	71 (25.3%)
합계	412	318	123	280



[그림 1] 위험도와 생존확률

2. 다층생존분석

초등학생은 <표 3>에서 나타났듯이 커닝은 시간에 따른 로그승산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정신건강상태와 시험스트레스가 커닝의 로그승산에 정적(+) 효과를 주어 우울과 불안등의 정신적 상태가 높아질수록, 시험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커닝의 발생 승산비는 증가하였다. 또한 부모의 감독하는 양육태도는 커닝의 로그승산에 부적(-) 효과를 주어 부모님의 감독을 통한 자녀의 생활지도 수준이 높을수록 커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수준인 학교 수준의 변수 중에 학생상담사업은 커닝의 로그승산에 부적(-) 효과를 주어 학교에서 상담 사업을 실시할수록 커닝은 감소하였다. 초등학생의 비행 중에 커닝이 가장 높은 비율로 비행이 발생함으로 가정의 자녀 지도와 학생의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을 해결하는 교육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따돌림은 다른 초등학교 학생들의 비행과 달리 시간이 로그승산에 부적(-) 효과를 주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민의식, 교사와의 관계에서의 학교적응,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감독, 학교만족도는 따돌림 비행의 로그승산에 부적(-) 효과를 주었다. 즉, 시민의식이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부모의 감독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교만족도가 높을수록 따돌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신건강은 커닝과 같이 정적 효과를 주어 정신건강이 안 좋을수록 따돌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수준에서는 지역규모, 생활지도사업, 교사의 사기와 열의가 따돌림에 부적효과를 주었다. 지역은 도시가 아닌 읍면지역일수록, 생활지도사업을 실시할수록, 교사의 사기와 열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따돌림은 감소하는 것이다.

결석은 성별, 정신건강,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학교적응은 결석의 로그승산에 정적 효과를 주었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결석을 하며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결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식, 부모의 감독인 양육태도는 부적효과를 주어 시민의식이 높을수록, 부모의 감독이 높을수록 결석을 하지 않았다. 결석은 학교수준의 유의한 영향은 없다.

가출은 성별, 정신건강이 가출의 로그승산에 정적 효과를 주었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가출을 하고 우울과 불안이 높을수록 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석과 비슷하게 시민의식, 부모의 감독 양육태도가 부적효과를 주었다.

<표 3> 다층생존분석 결과

초등학교	커닝		따돌림		결석		가출	
	b	se	b	se	b	se	b	se
절편(전체평균)	-3.221***	.246	-2.588***	.287	-4.256***	.500	-4.064***	.292
개인 수준								
시간	-.051	.098	-.324**	.119	-.189	.150	-.221	.119
성별	.166	.095	-.034	.132	.697***	.182	.991***	.134
정신건강(우울불안)	.462***	.071	.421***	.062	.264*	.120	.609***	.081
자아존중감	.119	.097	.131	.106	.063	.165	-.006	.130
시험스트레스	.123*	.059	.044	.059	.037	.074	.045	.069
교육포부	.044	.028	-.005	.037	-.022	.052	-.013	.046
시민의식	-.146	.113	-.378***	.101	-.404*	.183	-.226*	.115
학교적응(친구)	.065	.099	.137	.093	.303*	.153	-.051	.112
학교적응(교사)	-.145	.092	-.194*	.083	-.064	.127	.020	.092
양육태도(감독)	-.218***	.051	-.203***	.063	-.219**	.093	-.388***	.071
학교만족도	-.032	.061	-.124*	.058	-.145	.082	.054	.076
학교인권상황	-.056	.037	-.003	.036	.025	.040	.056	.035
학교 수준								
지역규모	.052	.177	-.402**	.154	-.169	.278	.164	.139
혁신학교	.254	.159	.212	.127	.197	.233	.209	.142
생활지도사업	-.012	.141	-.425**	.148	-.478	.265	-.058	.125
학생상담사업	-.345*	.159	.228	.146	-.031	.333	-.059	.157
교사의사기열의	-.288	.254	-.412*	.189	-.049	.286	-.227	.172
교사교직만족도	.024	.269	.139	.178	-.112	.221	.118	.150
학교장변혁리더십	.277	.253	-.356	.227	.085	.275	.134	.137
학교장인성교육목표설정	.262	.140	.202	.132	.153	.195	-.057	.297
분산								
학교간 분산(u_0)	.2904		.1505		.2491		.0804	
집단내 생관(ICC)	.0811		.0437		.0704		.0328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들의 시험 부정행위(커닝), 집단 따돌림, 무단결석, 가출 경험의 최초 발생시점과 그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학교의 특성과 경기교육청의 혁신학교에 대하여 다층구조적 분석을 통해 개인의 비행에 영향을 주는 특성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높은 비행 유형은 커닝이고 가장 낮은 비행 유형은 결석이다.

둘째, 커닝은 우울과 불안 요인이 높을수록 커닝을 하였고 부모의 감독을 통한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의 생활지도를 할수록 커닝은 감소하였다. 그리고 학생상담사업이 학교에서 운영이 되면 학생의 비행은 줄어들었다.

셋째, 따돌림은 학생들이 우울과 불안의 정서적 요인이 높을수록 따돌림을 더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모의 감독을 통한 양육태도 영향은 커닝과 같이 부모가 생활 지도를 할수록 따돌림은 줄었으며 시민의식이 높을수록 따돌림은 줄어들었다. 학교수준에서는 많은 요인이 영향을 주는데 지역에서는 읍면이 도시지역보다 따돌림이 더 많고 교사의 열의와 사기가 높은 학교 그리고 생활지도 사업 실행 학교가 따돌림이 적다.

넷째, 결석은 우울과 불안인 심리요인이 높을수록 결석이 증가하였고, 부모의 감독을 통한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결석도 줄어들었다. 남학생의 결석이 여학생보다 많고 시민의식이 높으면 결석을 줄여준다.

다섯째, 가출은 우울과 불안이 높을수록 가출이 증가하였고, 부모의 양육이 있을수록 가출은 줄어들었다. 그리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출이 많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비행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유형에 따라 요인이 다양하게 영향을 주지만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우울과 불안의 심리요인 상태와 부모의 감독을 통한 양육태도이다. 즉, 개인의 불안한 심리상태가 비행에 더 큰 영향을 주며 부모의 감독을 통한 적극적인 양육태도는 비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감독 양육태도는 조사 질문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지도를 의미함으로 감독을 통한 통제의 의미가 아니라 관심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지도는 자녀 비행을 막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김성훈(2015b)의 연구에서 청소년 비행에 부모의 방임이 부적영향을 주는 것과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학생의 심리안정을 위해 가정, 학교, 지역의 노력이 필요하며 가정의 지도 또한 중요하다.

둘째, 초등학생에게 가장 높은 비행 유형은 커닝이다. 한국선, 우남희(2005)도 아동의 시험부정행위가 가장 빈번하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이에 초등학생의 커닝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 요인이 시험스트레스이다. 그러므로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는 시험을 실시하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교육과정, 시험스트레스 자체를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과 지도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따돌림에서 주목할 부분은 교육에 대한 영향이다. 시민의식이 부적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초등학생들에게 건전한 시민의식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허혜경, 김혜수(2011)는 학생들 대상의 시민의식 교육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시민의식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 못함을 지적하였

다. 그러므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위해 지식 영역에 편중된 교육 대신에 건전한 가치관과 태도 및 실질적 사회 참여와 실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조화로운 교육과 경험 제공(이범용, 2015)이 필요하다. 그리고 액션러닝과 같은 시민교육 모델들을 활용한 교사 프로그램(오관석, 신기현, 2008)이 시민의식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결과와 정책함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혁신학교가 초등학생들의 비행에 대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기선, 민병철, 김정은(2014)의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혁신학교의 효과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혁신학교가 전환한 학교에 대한 모델링이 더욱 자세히 이뤄져야 더욱 정확한 분석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혁신학교의 비행에 대한 효과는 더욱 진행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상담 사업, 생활지도 사업등의 인성관련 사업은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일반학교든 혁신학교든 인성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 사업들이 구현되는 혁신학교가 더욱 큰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청소년비행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 청소년 비행의 횟수가 실제보다는 적게 추정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조성민·정선심(1993)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78%, 고등학생의 91%가 시험 및 학업 부정행위를 한 경험이 있다고 나타나는데 반해 이 연구에서는 그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비행에 청소년 스스로의 방어기제가 발휘되어 조사과정 중에 과소추정이 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 이를 극복하는 조사와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상진, 전민정, 장지현. 2005.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문제행동 비교분석 : 3수준 다층분석”,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145-173.
- 고은희, 김은정. 2015. “우울, 주의집중의 어려움, 인터넷 사용빈도 및 교사/친구관계가 청소년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3): 1-26.
- 기광도. 2012. “청소년 폭력비행에 관한 경험적 연구 : 가정, 학교, 친구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학회』 11(2): 61-86.
- 김경식. 1997. “중고교 중퇴생과 재학생의 교내외 생활비교를 통한 중퇴요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7(3): 115-138.
- 김성은, 박산하, 김진석. 2014. “청소년 사이버 일탈과 관련변인의 탐색: 다층 포아송모형의 적용.” 『교육학연구』 52(1): 147-168.
- 김성훈. 2015a. “초중고 학생들의 비행 특성 분석을 위한 다층생존분석 연구.” 『제 2회 경기교육중단연구 학술대회』 283-312.
- 김성훈. 2015b. “청소년 최초 비행 요인에 대한 다층생존분석 연구.”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제5회 학술대회 논문집』 338-359.
- 김영순, 김혜원. 2007. “청소년 가출의 실태 파악과 가정, 학교, 성격 및 자아개념과의 관련성 분석.”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5(2): 43-55.
- 김영한, 조아미, 이승하, 2013.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 과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지경, 김균희. 2013. “청소년의 음주 여부 및 빈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20(2): 317-346.
- 남미경, 이경남. 2009.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 41-54.
- 남재봉(2011). “청소년 비행의 유형별 관련요인.” 『사회과학연구』 28(2): 1-23.
- 노성호. 2005.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가정, 학교, 친구요인의 상호작용효과 검증.” 『형사정책연구』 63: 295-330.
- 노성호. 2006. “비행친구와 비행행동의 인과성에 대한 검증.” 『형사정책연구』 68: 297-332.
- 박경숙, 손희권, 송혜정. 1998. “학생의 왕따 현상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RR98-1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소연, 이홍직. 2013.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건강 요인, 일탈행동 요인을 중심으로.” 『스트레스연구』 21(2): 73-84.
- 박영호, 김태익. 2002. “가출 예측 척도에 의한 여중생들의 가출 요인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0(2): 81-99.

- 박혜숙, 김양곤. 2014. “한국 청소년의 정서, 가정, 또래 및 학교환경 특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2): 119-143.
- 백혜정, 방은령. 2009.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연구보고 09-R0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서봉언, 김경식, 최정보. 2015. “청소년 사이버 욕설의 영향 요인 분석: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여.” 『교육사회학연구』 25(2): 47-68.
- 성기선, 민병철, 김정은. 2014. “경기도 혁신학교 효과분석: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경기교육중단연구 제1회 학술대회 논문집』 303-329.
- 송현저. 1994. “시험부정행위와 성(性), 내·외적 성공기대, 반사회성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심미영, 장규석. 2007. “한국 청소년비행에 관한 Hirschi 이론의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12(3): 147-171.
- 심우엽. 2000. “학업부정행위의 실체 및 원인분석과 대처방안.” 『초등교육연구』 14(1): 85-106.
- 양정호. 2005. “중학생의 왕따 발생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 32(2): 31-52.
- 오관석, 신기현. 2008. “민주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교육이념 및 정향에 관한 연구: 시민의식 수준과 영역체계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1: 67-106.
- 오승환. 2010. “청소년 가출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 요인-가출충동과 가출경험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301-324.
- 이범용. 2015. “한국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발전 방향 모색.” 『초등도덕교육』 49: 33-65.
- 이상무, 남성희. 2012. “청소년 가출빈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과잉 포아송 회귀모형을 활용한 분석.” 『청소년학연구』 19(1): 85-108.
- 이성식. 2011. “청소년비행에 있어서 가정, 학교, 친구요인과 그 심리적 매개요인들의 작용 : 주요 세 비행이론들의 검증.” 『형사정책』 23(2): 121-142.
- 이재경. 2012. “청소년기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애착이 비행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 『청소년복지연구』 14(2): 51-73.
- 임희진. 2014. “2014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신형, 김원경, 황성현. 2010. “청소년 가출에 관한 상호작용론적 접근: 손베리 이론의 부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1(4): 31-50.
- 전유리, 김윤지, 송하나. 2013. “청소년의 일탈 및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의 영향력 분석.” 『2013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건강과 행복』 338.
- 조미경, 김희영. 2013. “무단결석과 청소년 비행경험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0(6): 103-125.
- 조성민, 정선심. 1993. 『논리와 가치탐구 1,2』 서울: 철학과 현실사.
- 한국선, 우남희. 2005. “한국 아동의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 10:

174-186.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허균. 2014. “비연속시간 생존분석을 적용한 청소년의 최초 진로고민과 진로장벽 경험 시점 연구.” 『청소년학연구』 21(10): 101-118.
- 허준, 이윤호. 2012.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비행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8(2): 213-240.
- 허혜경, 김혜수. 2011. “세계화 시대에 따른 시민의식 교육에 대한 청소년 및 교사의 인식 및 실태 분석” 『한국교육논단』 10(3): 1-20.
- 현문정, 한영선. 2015. “자기통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22(5): 391-420.
- 홍세희, 김동기. 2007. “비연속시간 생존분석을 적용한 청소년의 최초 가출 발생시점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아동학회지』 28(2): 217-233.
- 홍세희, 노연경. 2010. “비연속시간 생존분석을 적용한 청소년의 최초 폭력 발생시점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 『조사연구』 11(3): 81-101.
- 황성현. 2012.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대한 상호작용론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9(10): 23-42
- 황성현, 이강훈. 2013.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사회학습, 사회유대, 일반긴장이론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24(3): 127-145.

Non-Korean References

- Anderson, Eric M., Tripp Griesinger, and Gloria Westerfield. 1998. "Motivation and Cheating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0 (1): 84-93.
- Asher, Steven R. 1990. "Recent Advances in the Study of Peer Rejection." In *Peer Rejection in Childhood*, edited by Steven R. Asher and John D. Coie, 3-1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wers, Louise, Peter K. Smith, and Valerie Binney. 1992. "Cohesion and Power in the Families of Children Involved in Bully/Victim Problems at School." *Journal of Family Therapy* 14 (4): 371-387.
- Garry, Eileen M. 1996. *Truancy: First Step to a Lifetime of Problem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Little, Roderick J. A. and Donald B. Rubin. 2002. *Statistical Analysis with Missing Data*, 2nd ed. Hoboken NJ: Wiley.
- Olweus, Dan. 1993. "Victimization by Peers: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edited by Kenneth H. Rubin and Jens B. Asendorpf, 315-341. Hillsdale NJ : Erlbaum.

국문참고문헌의 영어표기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 Baek Hae-jung and Bang Eun-ungr. 2009. *A Study on the Status and Problems of Youth Runaways*. Seoul: NYPI.
- Cho Mi-koung and Kim Hee-young.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Truancy and Adolescent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 (6): 103-125.
- Cho Sung-min and Jung Sun-sim. 2013. *Logic and Value Exploration*. Seoul: Philosophy and Reality.
- Han Kook-sun and Woo Nam-hee. 2005. "Examining Cheating on Examinations and Homework, Focusing o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A Study of Students' Cheating Behavior." *Dongduk Journal of Life Science Studies* 10: 174-186.
- Heo Gun. 2014. "A Study on the Onset of Adolescents' Career Concerns and Career Barrier through Discrete-Time Survival Analysi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2 (10): 101-118.
- Heo Jun and Lee Yoon-ho. 201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Juvenile Leisure Activities and Delinquency." *Korean Criminal Psychology Review* 8 (2): 213-240.
- Hong Sae-hee and Kim Dong-ki. 2007. "Determinants of the Onset of Adolescent Runaway Behavior: An Application of Discrete-Time Survival Analysi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8 (2): 217-233.
- Hong Sae-hee and No Uoun-koung. 2010. "Applying Discrete-Time Survival Analysis to Testing the Determinants on the Onset of Adolescents' Violence Behavior." *Survey Research* 11(3): 81-101.
- Hwang Sung-hyun. 2012. "A Study of Interaction Theory on Adolescents' Status Offenses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 (10): 23-43.
- Hwang Sung-hyun and Lee Kang-hoon. 2013. "A Theoretical Approach Regarding Social Learning, Social Bonding, and General Strain Theory on the Causes of Juvenile Delinquency." *Studies on Korean Youth* 79: 127-145.
- Huh Hae-goung and Kim Hae-soo. 2011. "An Analysis of Adolescents' and

- Teachers' Perceptions Regarding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Journal of the Korean Educational Forum* 10 (3): 1-20.
- Hyun Moon-jung and Han Young-sun. 2015. “The Effect of the Self-regul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on the Self-control and Aggression of Juvenile Delinqu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 (5): 391-420.
- Jeon Yu-ree, Kim Yoon-ji, and Song Ha-na. 2013. “An Analysis of Influential Factors in Adolescents' Delinquency.” 1st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Jun Sin-houng, Kim Wong-kyung, and Hwang Sung-hyun. 2010. “Interactional Theory as an Approach to Adolescent Runaways: A Partial Test of Thornberry's Theory.” *Studies on Korean Youth* 21 (4): 31-50.
- Kang Sang-jin, Jeon Min-jung, and Jang Ji-hyun. 2005.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roblem Behavior of High School Students in the Human Industry.” 1st KEEP Conference 145-173.
- Ki Kwang-do. 2012. “An Empirical Study on Juvenile Violence.” *Korea Policy Research* 11 (2): 61-86.
- Kim Kyung-sik. 1997. “An Analysis on the Declassification Fact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Sociology of Education* 7 (3): 115-138.
- Kim Sung-eun, Park San-ha, and Kim Jin-suk. 2014. “Juvenile Cyber-delinquency and Related factors: A Multilevel Poisson Regression Model.”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2 (1): 147-168.
- Kim Sung-hoon. 2015a. “Multilevel Time Discrete Survival Analysis on the Delinquency of Student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2th GEPS Conference, 283-312.
- . 2015b. “A Study on the Multilevel Survival Analysis of the First delinquency Factors for the Youth.” 5th KCYPS Conference 338-359.
- Kim Young-soon and Kim Hae-won. 2007. “Exploration on Runaway Adolescents and Related Variables of Family, School, and Self-concept Factors.”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5 (2): 43-55.
- Kim Ji-kyoung and Kim Kyun-hee. 2013. “Factors Affecting Drinking and Drinking Frequency among Korean Yout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 (2): 317-346.
- Koh, Eun-hee and Kim Eun-jung. 2015. “The Effects of Depression, Inattention, Internet Use and Teacher-student/Peer Relationships on Cyber Delinquency in

- Adolescents: Testing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 (3): 1-26.
- Lee Bum-ung. 2015. “Groping for Direction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Korea.” *Elementary Moral Education* 49: 33-65.
- Lee Jae-kyung. 2012. “A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 Attachment, Peer Attachment and Teacher Attachment on Delinquency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Welfare* 14 (2): 51-73.
- Lee Sang-mu and Nam Sung-hee. 2012. “Factors Affecting the Increase of Youths' Runaway Episodes: An Analysis Using the Zero-inflated Poisson Regression Model.”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 (1): 85-108.
- Nam Jae-bong. 2011. “Classification of Korean Juvenile Delinquent Behavior and an Analysis of the Related Factors.” *Journal of Social Science* 28 (2): 1-23.
- Nam Mi-kyung and Lee Kyung-nim. 2009. “The Ecological Variables on Adolescents' Runway Impuls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 (4): 41-54.
- Noh Sung-ho. 2005. “Analysis of Interaction Effects between Major Factors on Juvenile Delinquency.”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63: 295-330.
- . 2006. “Analysis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elinquent Peers and Delinquent Behavior.”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68: 297-332.
- Oh Kwan-suk and Shin Ki-hyun. 2008. “A Study on the Educational Ideas and Orientation of Adolescent for Building Democratic Citizenship: Focused on the Level of Citizenship and Dominated System.”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67-106.
- Oh Seung-hwan. 2010. “A Study on the Eco-systemic Variables Affecting Youth Runaways, Focusing on the Runaway Impulse and Runaway Experience.” *Journal of Youth Welfare* 12 (4): 301-324.
- Park Hae-sook and Kim Yang-gon. 2014. “Effects of Korean Adolescents' Emotion (Affect), Family, Peer, and School Environment on Juvenile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8 (2): 119-143.
- Park Kyoum-sook, Son Hee-kwan, and Song Hae-jung. 1998. *A Study on Bullying among Students*. Seoul: KEDI.

- Park So-hyun and Lee Hong-jik. 2013. "Determinants of Subjective Well-Being among Korea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1 (2): 73-84.
- Park Young-ho and Kim Tae-ik. 2002. "Factors of Juvenile Runaways in Terms of Runaway Scal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0 (2): 81-99.
- Seo Bong-eun, Kim Kyung-sik, and Choi Sung-bo. 2015.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Adolescent Cyber Swearing: Using B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5 (2): 47-68.
- Seong Ki-sun, Min Byung-chul, and Kim Jung-en. 2014. "An Analysis of Gyeonggi-do Innovation School." 1st GEPS conference 303-329.
- Shim Mi-young and Jung Kyu-suk. 2007. "Verification of Hirschi's Theory about Juvenile Delinquency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2 (3): 147-171.
- Sim Mi-young and Jung Kyu-suk. 2007. "Verification of Hirschi's Theory about Juvenile Delinquency in Korea."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Welfare* 12 (3): 147-171.
- Sim Woo-yob. 2000. "Academic Dishonesty: Prevalence, Determinants, Techniques, and Prevention Strategies."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14 (1): 85-106.
- Song Hyun-jeo. 1993.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Cheating Behavior, Sex, Anticipated Success, and Antisocial Behavior."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 Yang Jung-ho. 2005. "A Study on the Causes of Bullying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2 (3): 31-52.